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이 현 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

이 기 영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제 1 장 서론

정보의 기여가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를 우리는 정보사회 또는 정보화사회라고 부른다. 정보사회화를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던 것과 비교할 만큼 큰 문명사적 대 전환으로 규정할 정도로(Toffler, 1980), 오늘날 정보화사회는 단순한 유행사조가 아닌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시대조류로 인식된다. 정보화사회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정보의 생산과 파급이 용이해졌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징은 인터넷의 출현으로 급속하게 현실화되었다. 인터넷은 정보화사회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가정이 정보화사회의 기본적 단위세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 할수 있다.

국내 인터넷사용자가 2001년 3월 현재 2,093만명에 도달하고, 또 가정에서의 인터넷 가능률 또한 52.3%에 달해(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b), 그야말로 “인터넷의 생활화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사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광대역통신망의 가정보급률과 가정에서의 인터넷사용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주부인터넷교육에 힘입어 주부의 인터넷사용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주부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 주부의 인터넷사용의 증가는 주부 개인의 생활 뿐 아니라 가족체계 전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대학내 연구소이나 프로젝트차원에서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예를들면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의 『The HomeNet Project』, 미국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등에서 인터넷활용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터넷패널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영국 Oxford 대학의 OII(Oxford Internet Institute)에서도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을 다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 수준은 인터넷사용실태에 대한 기초조사(한국전산원, 2001;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1999, 200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a, 2000b, 2000c, 2001a, 2001b)내에서 인터넷사

용 이후 변화된 생활양상이 일부 제시되는 정도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이외에 인터넷이나 정보화가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함인희, 1996; 박부진, 1998; 조은, 1998; 조정문 외, 1999; 박부진·이해영, 2000)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또 일부는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서 제시된 선행연구들의 제한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접근법에 근거하여 인터넷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정내에서 주부의 역할을 고려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부의 인터넷사용이 가족체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체계적 접근법

체계적 접근법은 체계에 초점을 두고 체계의 구성요소인 하위체계,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체계, 하위체계, 환경간의 상호작용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다(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4). 가족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하고 적응해나가는 역동적인 체계이므로, 체계적 접근법이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가 관리적 하위체계와 인적하위체제로 구성된다고 보는 체계적 접근법은 주부의 인터넷사용이 가족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가족의 하위체계는 기능에 따라 인적 하위체계(personal subsystem)와 관리적 하위체계(managerial subsystem)로 나뉜다(Deacon과 Firebaugh, 1988). 인적 하위체계는 표현적 기능(expressive function)을, 그리고 관리적 하위체계는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을 수행하는 하위체계이다. 표현적 기능은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인간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 기능이고, 도구적 기능은 가족의 목표를 명료화하고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적 기능이다.

1) 관리적 하위체계

관리적 하위체계는 자원을 사용하여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주로 시간이나 금전, 공간, 에너지와 같은 자원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하위체계의 변화를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관리행동의 기본적 속성을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에 있다고 보고, 이 3가지 차원에서 관리행동의 변화를 분석한다.

우선 '계획성'은 자원관리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접근법에 의하면 자원관리는 가족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사용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처럼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적 행동은 관리의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욕구충족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원관리의 속성을 '계획성'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효율성'과 '균형성'은 자원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자원관리의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김외숙, 이기영, 최은숙, 1996; 이기영, 조영희, 송혜림, 이승미, 1998). 자원관리의 목적이 자원사용의 양은 극소화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므로(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 1994), 자원관리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나 금전의 차원에서 자원사용을 극소화하면서 만족을 극대화하고자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자원관리의 속성을 '효율성'으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관리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는 '균형성'이다. 자원관리의 균형성은 가족원의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측면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나 금전 등의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하는 관리적 행동의 속성을 '균형성'이라 보았다.

2) 인적 하위체계

인적 하위체계는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발달하는 표현적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로 가족원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가족관계는 가족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구조, 역할구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개인간의 심리적·정서적 구조인 개인적·심리적 관계를 포괄하는 것이다(유영주, 1996).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 하위체계의 변화를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 가족관계를 개인적·심리적 관계의 측면과 사회적 관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서 개인적·심리적 관계는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는 가족내 권력구조나 역할구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족관계의 개인적·심리적 측면인 가족원간의 친밀감과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간의 성역할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는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는 아

래 표에 제시한 하위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가족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표-1〉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하위체계	수행기능	하위요소	하위요소의 속성
관리적 하위체계	도구적 기능	시간관리 재무관리	계획성 효율성 균형성
인 적 하위체계	표현적 기능	가족관계	친밀감 평등성

2. 가족체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 1) 거시적 환경의 변화
- 2) 미시적 환경의 변화

3.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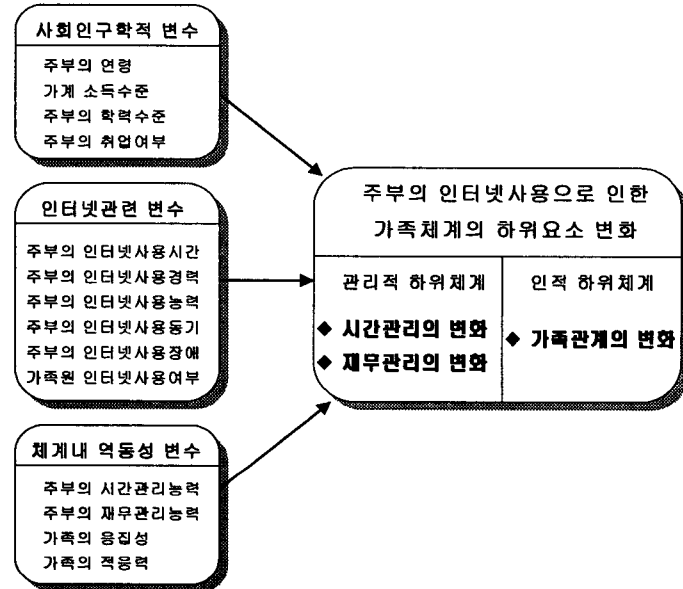
- 1) 관리적 하위체계의 측면
 - (1) 시간관리의 변화
 - (2) 재무관리의 변화
- 2) 인적 하위체계의 측면 : 가족관계의 변화
 - (1) 가족원간 친밀감의 변화
 - (2) 부부간 성역할관계의 변화

4.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수
- 2) 인터넷관련 변수
- 3) 체계내 역동성 변수

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부'로 하였다. 이때 인터넷사용의 기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인터넷이용자기준을 따라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자'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질문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2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00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인터넷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01년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on-line)조사와 면접원을 통한 오프라인(off-line)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을 통해 316명, 오프라인을 통해 300명, 전체 616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582명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빈도, 백분율, 평균, 일원분산분석, 다중범위검정, 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그리고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변수설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제 4 장 분석결과 및 논의

1. 시간관리의 변화

시간관리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성, 효율성, 불균형성¹⁾의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시간관리의 계획성은 월평균소득이 많을수록,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시간관리능력이 뛰어날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용시간제곱의 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것은 인터넷사용시간이 너무 적거나 많은 것보다 적당한 수준일 때 시간관리의 계획성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통해서 볼 때, 시간관리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평소 주부의 시간관리능력이 인터넷사용이후 시간을 보다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편 시간관리의 효율성은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 사용능력이 뛰어날수록,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정보적 동기가 낮을수록, 그리고 시간관리능력이 뛰어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의 계획성 차원과 마찬가지로 시간관리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시간관리능력이다. 그만큼 인터넷사용이후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평소 시간관리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시간관리의 균형성은 그 척도를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균형성 척도를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한 것은 인터넷사용이 수면이나 휴식시간과 같은 생리적 시간의 감소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후 분석에서는 주부의 인터넷사용의 영향이 시간배분의 균형을 도모하기보다는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 가정하여 균형성 척도를 '불균형성'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표-2〉 시간관리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

		시간관리의 계획성		시간관리의 효율성		시간관리의 불균형성	
		B	Beta	B	Beta	B	Beta
인구 통계적 변수	연령	-6.23E-03	-.058	-2.01E-03	-.023	1.77E-03	.014
	월평균소득	6.18E-04	.087*	2.29E-04	.040	-4.34E-04	-.050
	학력년수	-2.61E-02	-.070	-4.54E-02	-.152***	5.47E-03	.012
	취업여부	2.67E-02	.017	-1.49E-02	-.012	-5.54E-03	-.003
인터넷 관련 변수	사용시간 (사용시간제곱) ^a	-1.58E-04	-.087*	2.98E-04	.005	3.12E-02	.342***
	사용경력	3.27E-03	.057	1.77E-03	.039	-2.83E-03	-.041
	사용능력	.114	.132**	.138	.199***	.201	.192***
	도구적 동기	.153	.204***	.116	.192***	.217	.237***
	여가적 동기	3.15E-03	.004	-8.81E-03	-.014	4.22E-02	.046
	발전적 동기	7.13E-02	.094*	4.76E-02	.078*	5.58E-02	.060
	정보적 동기	2.17E-02	.029	-5.52E-02	-.091*	-2.15E-02	-.023
	사용장애	1.89E-02	.014	-5.87E-02	-.052	.407	.239***
체계 역동성 변수	시간관리 능력	.345	.233***	.317	.265***	-.271	-.150***
(Constant)		1.870***		2.433***		1.679***	
R ²		.195		.200		.351	
수정된 R ²		.177		.181		.336	
F값		10.57***		10.91***		23.52***	

a : 시간관리의 계획성에 대해서만 적용됨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은 인터넷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사용장애가 클수록, 시간관리능력이 떨어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인터넷사용시간과 인터넷사용장애이다. 이는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나친 인터넷사용을 피하고, 사용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시간관리의 변화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는 인터넷관련변수와 체계내 역동성변수인 시간관리능력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인터넷사용능력과 도구적 동기가 시간관리의 모든 차원에서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는 인터넷사용능력과 도구적 동기가 시간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영향 뿐 아니라,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

관리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보다 중요한 변수는 평소 주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관리능력이라 할 수 있다. 시간관리능력은 시간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원래 시간관리능력이 뛰어난 주부가 인터넷을 활용할 때, 시간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이며,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시간관리차원에서 계획성과 효율성과 같은 인터넷사용의 긍정적 영향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불균형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부가 인터넷사용능력이나 도구적 동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간관리능력을 기본적으로 함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은 사용시간과 사용장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나친 인터넷사용을 피하고, 사용상 장애를 극복하는 것 또한 시간관리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조건이 된다.

2. 재무관리의 변화

재무관리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성, 효율성, 불균형성²⁾의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재무관리의 계획성차원에서 볼 때, 전업주부이면서, 인터넷사용능력이 뛰어날수록, 그리고 도구적 동기, 자기발전적 동기와 정보적 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재무관리능력이 뛰어날수록 재무관리의 계획성에 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이들 변수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재무관리능력인데, 이는 평소 재무관리능력이 뛰어난 주부일수록 인터넷을 재무관리의 계획성 향상에 더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부의 재무관리능력 다음으로 상대적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인터넷사용능력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주부의 재무관리능력이나 인터넷사용능력과 같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사용동기 중에서는 특히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재무관리의 계획성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무관리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인터넷사용시간이 길수록, 사용능력이 뛰어날수록,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그리고 재무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재무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 변수 중 인터넷사용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큰데, 이는 인터넷사용능력에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과 주식거래, 인터넷티켓에매 등 재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뛰어나고, 인

2) 재무관리의 균형성은 그 척도를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균형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균형성 척도를 부정적 표현으로 구성한 것은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관련 지출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가계의 재무관리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분석에서는 인터넷사용의 영향이 가계지출배분의 균형을 도모하기보다는 불균형을 야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균형성 척도를 '불균형성'이라는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터넷에 대한 도구적 동기가 강하며, 기본적인 재무관리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인터넷이 재무관리의 효율성 향상의 수단으로 잘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차원에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사용장애가 클수록 재무관리의 불균형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능력, 사용장애, 도구적 동기가 재무관리의 불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사용장애와 사용능력, 도구적 동기가 재무관리의 불균형성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앞서 시간관리의 불균형성에서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능력과 도구적 동기가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균형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3〉 재무관리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

		재무관리의 계획성		재무관리의 효율성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B	Beta	B	Beta	B	Beta
인구 통계적 변수	연령	-1.12E-03	-.012	3.44E-03	.032	5.02E-03	.051
	월평균소득	1.45E-04	.022	-1.07E-04	-.015	-1.48E-05	-.002
	학력년수	6.59E-03	.020	2.09E-02	.056	-3.80E-02	-.112**
	취업여부	-.111	-.078*	-5.45E-02	-.034	4.04E-02	.028
인터넷 관련 변수	사용시간	2.72E-03	.040	8.82E-03	.115**	-1.09E-03	-.016
	사용경력	2.18E-03	.042	-1.74E-04	-.003	1.28E-03	.025
	사용능력	.168	.215***	.310	.360***	.187	.238***
	도구적 동기	.139	.201***	.129	.170***	.147	.213***
	여가적 동기	-2.00E-03	-.003	2.60E-02	.034	1.01E-02	.015
	발전적 동기	5.42E-02	.078*	2.31E-02	.030	-2.32E-02	-.033
	정보적 동기	6.08E-02	.089*	5.40E-02	.071	-5.15E-02	-.075
사용장애	-5.92E-02	-.047	-4.57E-02	-.033	.299	.234***	
체계 역동성 변수	재무관리 능력	.284	.247***	.154	.121***	-2.41E-02	-.021
(Constant)		1.791***		1.525***		1.722***	
R ²		.283		.342		.176	
수정된 R ²		.267		.327		.157	
F값		17.21***		22.43***		9.31***	

* p<.05 ** p<.01 ***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무관리의 변화도 시간관리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는 인터넷관련변수와 체계내 역동성변수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인터넷사용능력과 도구적 동기는 재무관리의 모든 차원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다. 이 또한 시간관리의 변화에서 나타난 경향과 유사한 것으로, 인터넷사용능력이 높고 도구적 동기가 강할수록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재무관리의 불균형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계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불균형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므로, 단순히 인터넷사용능력과 도구적 동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만은 없다. 그러므로 이 두 변수를 제외한 다른 영향변수들을 토대로 인터넷이 재무관리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즉, 그외에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 차원에서는 재무관리능력이, 재무관리의 불균형성 차원에서는 인터넷 사용장애가 두드러진 영향요인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이 재무관리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균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주부가 인터넷사용능력과 도구적 사용동기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인 재무관리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수반되는 장애가 제거될 필요가 있다.

3.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부부간의 평등성 차원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부부관계의 친밀감 차원에서는 체계내 역동성변수가 모두 영향력 있는 변수로 제시되었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났다. 즉, 평소 가족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고, 남편이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사용이후 부부의 친밀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인터넷이 부부관계의 친밀감 향상에 기여하는데 수단으로서 활용되는가는 평소 가족이 지닌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 이외에도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부부친밀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친밀감 차원에서는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정보적 동기가 강할수록 부부친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자녀의 사용여부와 주부의 연령이 부모자녀간 친밀감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부부간의 친밀감이 향상된다. 자녀의 사용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인터넷을 사용할 때, 부모자녀간에 대화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주부의 연령과 자녀의 연령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부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은 곧 자녀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늘어나고 대화의 내용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편 동기요인 중에는 특이하게 정보적

동기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는 정보적 동기 내에 인터넷이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어 사용한다는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부평등성 차원에서는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높을수록, 도구적 동기와 자기발전적 동기가 강할수록, 인터넷 사용이후 부부간의 평등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센터(2000)에서 제시한 정보불평등지수는 인식지수, 접근지수, 역량지수, 이용지수 등으로 구성되는데, 인터넷사용능력은 역량지수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반해 볼 때, 정보역량차원에서의 평등이 성평등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관계의 변화는 앞서 제시된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변화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가족관계의 친밀감 차원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과 같은 체계

〈표-4〉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중회귀분석

		부부친밀감		부자친밀감		부부평등성	
		B	Beta	B	Beta	B	Beta
인구 통계적 변수	연 령	-2.89E-03	-.034	3.25E-02	.265***	3.76E-03	.045
	월평균소득	-3.73E-04	-.066	-4.12E-04	-.052	-2.89E-04	-.052
	학력년수	-1.81E-02	-.061	-4.85E-02	-.116**	1.24E-02	.043
	취업여부	3.17E-02	.025	1.62E-02	.009	-2.79E-02	-.023
인터넷 관련 변수	사용시간	-5.69E-03	-.095	7.24E-03	.086	1.81E-03	.031
	사용경력	8.26E-04	.018	3.46E-03	.053	-2.44E-03	-.055
	사용능력	5.45E-03	.008	-6.53E-03	-.007	.111	.164**
	도구적 동기	8.50E-02	.142***	3.33E-02	.040	6.99E-02	.118**
	여가적 동기	3.72E-02	.061	-2.83E-02	-.033	-3.61E-03	-.006
	발전적 동기	6.61E-02	.109**	2.07E-02	.024	6.08E-02	.102*
	정보적 동기	-2.03E-02	-.034	8.15E-02	.098*	1.37E-02	.023
	사용장애	-1.62E-03	-.001	6.90E-02	.044	4.71E-02	.043
체계내 역동성 변수	응집성	.187	.164***	.216	.134**	2.53E-02	.023
	적응력	.138	.112**	.111	.065	9.72E-03	.008
(Constant)		2.291***		.831		2.073***	
R ²		.150		.342		.078	
수정된 R ²		.127		.322		.053	
F값		6.60***		17.42***		3.16***	

* p<.05 ** p<.01 *** p<.001

내 역동성변수와 가족원의 사용변수의 영향력이 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의 친밀감은 남편이나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상반된 경향- 한편에서는 인터넷이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감소시키고 고립감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족성원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가족간 친밀감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을 통합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가족원사용여부와 같은 가족집단의 특성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족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을 활용하는 주체인 가족의 특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한편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가족관계의 친밀감 차원과 달리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즉,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인터넷사용은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시간관리와 재무관리의 불균형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단순히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유용한 도구로만 인식하고 주부들에게 무조건 인터넷사용을 강조하기보다는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히 관리행동의 불균형성은 인터넷사용시간과 사용장애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형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친 인터넷사용을 피하고 사용상 장애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과 인터넷사용동기(특히 도구적 사용동기)는 주부의 적극적인 인터넷활용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나, 주부가 인터넷을 가정자원관리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내 역동성 중 기능성 요소인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주부가 인터넷사용능력과 인터넷사용동기를 갖추는 것이 인터넷을 관리적 행동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 영향요인만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인터넷사용능력과 인터넷사용동기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주부의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은 관리의 계획성과 효율성에는 정적인 영향을, 불균형성에는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인터넷사용이후 관리적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간관리 능력과 재무관리능력 등의 기능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부의 인터넷활용에 있어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 등의 기본적인 자원관리능력은 인터넷사용능력이나 사용동기보다 선행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주부의 인적자원인 것이다.

셋째,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의 친밀성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과 같은 체계내 역동성변수와 가족원의 사용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남편이나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인터넷사용이후 가족관계의 친밀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평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으면서 가족원이 함께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족은 인터넷을 가족원간의 친밀감을 보다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반대로 평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 수준이 떨어지는 가족에게 인터넷은 가족원간 소외감과 고립감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것은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단을 활용하는 주체인 가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가족관계에 긍정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주체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부부관계의 평등성은 가족관계의 친밀성 차원과 달리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는 정보화사회에서 주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곧 부부관계의 평등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앞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주부들의 적극적인 인터넷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부인터넷교육의 프로그램은 주부들이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를 개발하고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보화사회에서 인터넷사용능력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능력으로 간주되므로, 주부들도 정보화사회를 살아나가는 생활인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부의 인터넷사용능력은 가정내 가족원들간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부부간의 성평등성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한다.

둘째, 인터넷사용의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교육차원에서 주부의 시간관리능력이나 재무관리능력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관리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연구결과에서 강조한 바, 주부가 시간관리능력과 재무관리능력을 갖출 때 인터넷사용의 긍정적 영향이 극대화되면서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터넷생활화시대에 시간관리능력이나 재무관리능력은 인터넷사용능력과 사용동기 보다 더 선행적으로 요구되는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주부들이 인터넷을 주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생활관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이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원활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원이 기본적인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를 함양하고, 또 인터넷사용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시대에 인터넷은 가족원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정서를 나누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가족원이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인터넷이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서 제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으려면, 인터넷사용에 대한 주체성도 함께 함양해야한다. 그러므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인터넷 교육에서도 단순히 인터넷사용과 관련된 기술적 능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은 생활의 도구이자, 가족관계를 매개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강조함으로써, 인터넷에 대한 주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가정에서 정보통신단말기를 소유하고 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연구결과 인터넷사용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관리적 차원의 불균형성은 인터넷사용장애와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과 관련된 통신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은 이제 필수적인 생활수단으로서, 업무나 학업, 자녀교육, 가사노동, 여가 등 모든 생활에 물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할 때, 사회구성원 누구나 차별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보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반이 확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4). 가정관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6).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박부진(1998). "정보화사회의 가족관계 -위계구조의 변화와 적용". 서울대인류학연구회.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105-129, 집문당.
- 박부진·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34.
- 유영주(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 이기영·조영희·송혜림·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학지사
- 조 은(1998). "정보화와 가족생활의 변화", 정보화로 가는 길, 98.5. 14-17.

- 조정문·임정덕·김성국·이대식·김영삼·조영복·신종국(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
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집 여름호, 389-415.
- 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0a). 국내 인터넷이용자수 급증요인 분석.
_____ (2000b). 2000년도 상반기 설문조사 실시결과.
_____ (2000c).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_____ (2001a).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_____ (2001b). 인터넷이용자수 및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전산원(2001). 2001 한국인터넷백서.
- 한국정보문화센터(1997). 정보화의 지형변화와 정보문화확산의 새로운 전개방향.
_____ (1998). 국민정보화인식 및 정보생활실태조사.
_____ (1999). 국민생활 정보화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_____ (2000). 2000 정보생활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th ed. Allyn & Bacon Inc., Boston.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ophadhyay, T. & Scherlis,W.(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http://
www.apa.org/journals/amp/amp5391017.html](http://www.apa.org/journals/amp/amp5391017.html)).
- Olson, D. H., Bell, R., & Portner, J.(1982).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FACES) II*. St. Paul : University of Minnesota.
- Pew Internet & America Life Project(2000). "Tracking online Life: How Women Use the
Internet to Cultiva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Friends".
(<http://www.pewinternet.org/reports/pdfs/Report1.pdf>).
- SIQSS(2000), Norman, H. Nie & Lutz Erbring.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
(http://www.stanford.edu/group/siqss/press_release/press_release.html).
- Toffler, Alvin(1980). *The Third Wave*, New York: Bantam Books. 이규행 감역(1989). 제 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